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원산지·양곡표시 위반 50개소 적발

배추김치 15개·쇠고기 6개·쌀 4개소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소장 이영진 이하 익산농관원)는 2016년 농축산물의 원산지·양곡표시에 대한 가공업체, 도소매상,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50개소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 단속되었거

나,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효과를 높였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가공업체는 2013년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1천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햇개박마를 국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위반물량 1.9톤, 35백만원)위반자는 징역월 집행유예2년, 벌금은 벌금 700만원 확정했고 B도정공장에서는 찹쌀 도정알자를 하루 앞당겨서 표시하고, 대형도정공장에서 가공한 것처럼 품질사항을 거짓 표시하여 찹쌀 112톤, 207백만원 상당을 적발·송치했으며 C떡집에서는 2006년 떡국떡 원산지거짓표시로 벌금 7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쌀과 국내산쌀을 7:3으로 혼합

하여 떡국떡 시루떡을 제조판매하면서 저희 업소는 수입쌀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떡국떡 등 74kg 3,770천원 상당을 판매(벌금 150만원)했다

또한 D도시락업체에서는 00열차 도사력에 중국산 등의 고추장 등을 거짓 표시하여 18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 밖에 13개소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나 중국산 고춧가루의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반찬류나 김치찌개로 판매하다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처분했다.

익산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김민서 익산시의원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7억 확보

익산시의회 김민서의원(새누리당)이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세 7억 확보 공로를 타 의원이 가로챈 것은 정치도리가 아니다"고 22일 익산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력 항의했다.



이 같은 지역 같은 사업을 갖고 지난 6월말 익산시 예산부서에서 국비확보 차원의 예산신청을 했으나 소방안전교부금과 중복배 예산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김민서 시의원 건의로 새누리 정운현 의원 주도로 9월말부터 추진해 14억 예산 신청으로 7억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다고 정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서 시의원 예산확보로 2000년 익산 시내와 남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준공된 유전배수펌프장 노후펌프가 교체예 침수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자료 일제 조사

군산시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공정과세를 위해 부과대상 자료를 일제 조사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허가·인가 등을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가 5종 89개로 세분화 되어 체계적인 자료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허가부서 통보사항에 대해 과세자료를 정비중에 있으며, 과세물건 변동자료인 휴·폐업, 면허 소재지, 지우승계, 물건변경 사항 등 4500건을 중점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면허·허가, 인가·등록 지정·검사 등 행정청의 면허수리에 대한 납세사 변동사항 ▲특정한 영업설비,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병원, 임신 육아강좌

원광대학교병원이 임신부 및 산모와 예비부부들을 위해 임신·육아 강좌를 연다

원광대병원은 오는 24일 교수연구동 5층 소강당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한 올바른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강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3명이다. 세계 평균 2.5명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중 꼴찌에서 내번재일 정도로 심각하다.

낮은 출산율과 임신부들의 높아진 연령대로 인하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원광대병원은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주관 아래 열일 이번 강좌에서 병원내외의 전문가를 초빙, 정확한 정보와 지식 전달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임신 중 산전 관리, 만삭이를 위한 가장내 모유 저장 정보, 모유수유에 황달 관리 지침 등에 관한 강좌에 이어 공공증을 해소 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강살리네트워크 금마면 탐천 일원 환경정화 활동

익산시와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강살리네트워크는 22일 익산시 금마면 탐천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익산시, 강살리네트워크를 비롯해 육군부사관학교, 해병전우회, 동우화인연, 기업환경협의회, 금마면 황각마을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해 탐천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폐비닐, 폐페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생태계 보전과 새만금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경찰-한국지엠

어린이교통사고제로 프로젝트 '노란발자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선·발자국 그려 사고 예방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와 한국지엠(주) 군산공장(본부장 김선홍)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나섰다.

22일 군산경찰과 한국지엠(주)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주변에 '노란발자국(어린이교통사고제로 프로젝트)' 도색을 실시했다.

군산 신중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김동봉 군산경찰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김원태 군산교육장, 녹색어머니회, 한국지엠(주) 군산공장 임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노란발자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정지선과 발자국을 그려 어린이들이 차도로부터 1m가량 떨어져 신호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도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특히 비용절감 부분에서도 기존 스티커를 설치비용의 1/200수준이며, 어린이들의 시야를 넓혀 주변에서 오는



차량들을 잘 볼 수 있게해 자연스러운 안전거리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노란발자국'의 시행은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한국지엠 대외정책에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회공헌 협찬을 의뢰하여 추진하게 됐다.

김선홍 한국지엠 군산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군산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동봉 군산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군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서부보훈청, '호국영웅과 함께 떠나는 청춘 여행'

전북서부보훈청(청장 장우일)에서는 지난 18일 관내에 거주하는 참전 국가유공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호국영웅과 함께 떠나는 청춘 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의 공로와 헌신을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상호간 소통을 통하여 전우애로 이뤄낸 그날의 영광과 청춘을 돌리드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극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제2연평해전·천안함포로 참배와 보훈미대관을 견학하였다. 특히 6·25참전호국영웅들은 같이 참전하였던 전우가 묻힌 현충원을 참배하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눈시울을 붉히면서 전우들의 넋을 기렸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 우리고장 호국영웅들의 공훈



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념물 건립, 공공시설 명칭부여, 각종 선양사업을 펼치는 '호국영웅일기프로젝트'와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했으며, 전북서부보훈지청은 현재 65세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세대로 노인성질환이나 상이처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호대상자의 가정에 보호시설비를 파견하여 재가복지 서비스 및 의료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중 참전 독거·복합질환 대상자들은 복권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개최

익산시 하반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지역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익산시, 익산교육지원청, 익산경찰서 및 시민단체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기관별로 그간

학교폭력 근절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민·관·학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청소년 선도 협조 체제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올해 익산시는 청소년보호와 육성을 위해 유해환경 감시 활동 강화, 위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학교폭력 우범지역 범죄예방 CCTV 운영,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익산경찰서는 학교폭력신고센터·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위기청소년선도 안전드림하우스의 운영실화, 지역경찰·학교·학부모·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SNS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지역 부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행복한 교육 문화 환경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 '동산골 사랑의 김치나눔'

익산시 동산동 신복마을 이홍순 씨 댁에는 22일 아침부터 최영규 도의원과 동산동 부녀회장인 이 씨 등 부녀회원, 동산동주민자치회와 동산동통장협의회 회장과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들어갔다.

'동산골 사랑의 김치나눔'은 올해 익산 국화축제 '동산동 먹거리부스' 운영 수익금 등으로 마련한 1천만원으로 1천 포기 배추와 각종 양념을 마련했다.

익산 최남단 만경강 지척의 동산동은 드넓은 평야와 바다가 지척이어서 먹거리가 풍부한 뿐 아니라 인심 좋고 범죄 없는 전형적 농촌이었다. 그러나 초기단계 도시화가 이뤄져 도농복합 지역으로 변모해 경제해탈에도 독거노인과 청소년가장 등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2008년부터 동산동부녀회가 주축이 돼 8년째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가 벌어진 것이다. 이들은 배추 1천포기를 21일 소금으로 간을 들여 물기를 빼고 고추가루 등 갖은 양념을 만든 후, 22일 김치를 버무리며 독거노인과 청소년가정에 한 곳 당 10포기씩 1백 개 박스포장을 해 전달한다. 이에 통장협의회에서 배추 1천포기와 김장재료를, 봉사회원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수육요기를, 부녀회는 떡과 과일

을 준비하는 등 화기애애한 마을 화합잔치가 됐다

박용화 회장은 "농사도 끝나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김치나눔으로 더욱 따뜻한 동산동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석·이홍순 회장이 3개 단체 회원과 김치나눔 행사를 벌이면 동산동 주민화합에도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산동주민센터 나온정 동장도 "매년 동산동 3개 단체가 함께하는 이웃사랑 봉사로 동산동이 '행복 복지동'으로 도약하고 계속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과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청원·종교계·기업 함께하는 '희망프로젝트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22일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군산시청원, 종교단체(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와 한화에너지(주)군산공장, 한국가스기술공사전북지사 등 2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시청원-종교계-기업이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청원한사랑나눔모금회, 군산시 관내 4대 종교단체, 기업인들이 연합해 종교를 초월한 나눔문화운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의 아름다운 꿈을 군산시에 실현시키자는 약속을 담아 진행됐다.

이날 담은 김장김치 500박스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 및 취약계층 50여 곳에 배분될 예정이다.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한몫을 한 것 같아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채정룡 이사장

은 "소의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기업의 이윤과 종교를 초월한 사랑으로 전개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희망의 마음들이 군산시 전역으로 번져나가 모두가 행복한 군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수송동에서도 사랑과 나눔의 애정촌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사랑나눔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부녀회,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배추를 직접 뽑는 과정부터 함께 했으며, 국산재료만으로 정성껏 담은 등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

김종진 수송동장은 "물질상면으로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수송동 자생단체에 감사드리고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준비한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송동의 나눔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성과발표회 개최

2016 군산드림스타트 성과발표회가 '꿈이 있는 아이, 함께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22일 군산어린이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양원 군산부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아동, 학부모, 자원봉사자, 후원자, 도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발표회는 드림스타트와 함께 한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 참여자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더 큰 변화와 참여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공영장 1층 로비에서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제공된 85종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진을 비롯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 성과를 130여 점의 전시와 가족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가족사진 이벤트가 진행됐다.

본 행사는 오후 6시 오키다나 안상

블과 타아공화국 청소년연화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드림스타트 우수사례 영상 경과 및 성과보고, 프로그램 운영영상, 우수아동 및 부모,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특히 드림스타트 주제곡인 '드림스타트로 오세요' 음악과 율동을 통해 청중과 함께한 무대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 추제를 참여한 장으로 만들었다.

군산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사업 확대와 가정의 회복을 통한 아동의 성장을 이끌어 내기위한 부모교육 등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